

정부합동대책반 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즉시 사용 / 산업부 공동배포

담당: 현장기업지원반

총괄팀장 강경성(02-2100-2601), 김건혁 사무관(02-2100-2600)

금융팀장 손병두(02-2156-9804), 박보란 사무관(02-2156-9753)

기업전담지원팀장 김병근(042-481-4550), 양승욱 사무관(042-481-4541)

1. 개성공단 입주기업 3곳 시화 지식산업센터 내 대체 공장 입주계약 체결

2. 유통업계도 입주기업 지원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

- 「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」에서 지난 2.15일과 2.19 일확정한 “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공장 지원방안”에 대한 조치로 입주 계약이 세건 체결되었음
- 입주기업 3곳은 지난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중인 시화지식산업센터의 현장실사를 완료하고, 2.22일 월요일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
 -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일부는 자사 보유 설비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, 3월 초부터는 생산에 착수할 예정임
 -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처음 1년간 임대료를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50% 감면하는 한편, 공장등록 등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최단기간에 조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것임

- 2.19일 정부합동대책반의 세부 추진계획 발표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10여곳의 문의가 지속되어, 향후 대체공장 입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들의 대체공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금일“산단공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TF”(연락처 : 070-8895-7359)를 발족하여 기업들이 생산과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
 - 한편,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음
 - 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사는 개성공단 폐쇄로 납품계약일 지키지 못하는 협력사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, 납품대금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음(한국체인스토어협회 보도자료, 2.16)
 - * 대형마트 3사 납품 개성공단 입주 협력업체 31개사, 연 220억원 납품
 - 아울러, 개성공단 입주 협력사의 제품 판촉을 강화하여 입주기업들의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 함
 - 롯데백화점, 현대백화점,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들도 협력사들에게 자체 동반성장펀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, 상품대금 조기 지급, 납품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면제, 판촉 바자회 등 자체적인 지원을 추진중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
- ※ 대체공장 지원 관련 문의 :
산업부 입지총괄과 박영삼 과장(044-203-4430), 김태훈 사무관(4431)
- ※ 유통업계 자체 지원 관련 문의 :
산업부 유통물류과 전용길 과장(044-203-4380), 정홍곤 사무관(4388)